

용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이동 동물원’

체험행사에 대한 의견서

■ 내용

귀 기관이 시행할 예정인 ‘찾아가는 이동 동물원’ 체험행사는 동물의 복지와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동물 체험행사의 취소 및 다른 행사로의 대체를 요청합니다.

■ 사유

I. 이동 동물원의 동물복지

국내에는 동물원의 등록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동물원법’이 아직 없기 때문에 모든 이동 동물원은 법적인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동물의 복지와 체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적인 인증/등록/허가 절차가 없습니다.

동물을 손으로 만지고 체험하는 행위는 사람에게서는 1회에 그치는 순간적인 행동이지만, 만짐을 당하는 동물에게는 장기간의 신체 억압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행동으로서 이는 동물보호법 제3조가 명시하고 있는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기본원칙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또한 숙련되지 않은 일반인이 동물을 다룰 경우 동물의 부상 및 폐사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며, 반대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동물의 공격성을 증가시켜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II. 영유아의 감염 위험

체험에 주로 이용되는 거북이, 뱀, 도마뱀 등 파충류와의 접촉은 살모

넬라 인체 감염의 주요 경로로서, 살모넬라 감염은 출혈을 동반한 설사, 구토, 고열, 경련성 복통과 함께 심한 경우 패혈증이나 뇌수막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내 살모넬라 인체 감염의 69%가 거북이, 악어 등 동물과의 직접 접촉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감염환자의 71%는 10세 이하의 어린이였습니다. 이 같은 위험 때문에 미국은 1975년부터 애완목적의 거북이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방문할 때도 절대 직접 접촉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지난 2013년 8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살모넬라 감염 예방을 위해 ‘어린이와 면역력이 약한 환자의 경우 파충류와 접촉 금지’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5세 이하의 영유아 성인에 비해 살모넬라균에 대한 감수성이 5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울대공원처럼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동물원조차도 전시되는 거북이 중 30%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습니다. (2008, J. Vet. Sci. 9(2): 177-181)

III. 왜곡된 생태교육

뱀을 목에 감거나, 작은 동물을 손으로 들고 구경하는 동물체험은 아이들에게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해 야생동물의 신체를 아무 제한 없이 만지거나 압박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을 심어주는 등 야생동물에 대한 반생태적이고, 비교육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동물체험은 사실상 처음 보는 동물을 만져보았다는 호기심의 충족 이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다큐멘터리 같은 영상물이 동물의 생태에 대해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교육방법입니다.

■ 결론

본 단체는 전시동물의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국회에서 ‘동물원법’ 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성을 가진 귀 단체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동물체험을 기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귀 단체가 본 단체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시

어 동물체험 행사를 취소하고, 동물과 영유아들에게 안전한 다른 행사로
대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10월 23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